

오피니언

다산포럼

민병욱



4월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풍습을 따라 1995년 유네스코가 '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했다.

출판을 넘어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속 좁은 문화적 배타주의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책의 날' 유감

문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줄여서 직지심체)과 목판본 책 '무구경광대다라니경'을 찍어낸 나라요, 민족이 아닌가.

앨 고어 전 미국부통령은 2005년 "세계는 급속인쇄술에 이어 유비쿼터스까지 두 번이나 한국에 큰 신세를 졌다"

화엔 감광인 채 카탈루냐 사람처럼 책과 장미를 주고받으며 즐겨왔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87년, 팔만대장경이 나온 1251년 10월11일(양력 환산)을 기려 책의 날로 봉정했지만 아무도 그날은 기억하지 않는다.

보다 뛰어난 기록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건 낡은 채 남의 풍습, 남의 기념일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분명 좋은 건 아니다.

방송사 무관심만 탓하기엔...

더욱 속상하는 건 정작 책을 관심을 가져야 할 이들의 철저한 무관심이다. 공영을 강조하는 TV방송사들이 올해 초부터 책 관련 프로그램은 동망 들어내 버렸다.

더욱 속상하는 건 정작 책을 관심을 가져야 할 이들의 철저한 무관심이다. 공영을 강조하는 TV방송사들이 올해 초부터 책 관련 프로그램은 동망 들어내 버렸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제품 '세계명품'으로 키워 낙후 벗자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엇보다 지역 브랜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30%대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교촌치킨, 떡볶이 하루 등 토종브랜드를 잇달아 세계적인 명품으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이제 지역명품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이 지역에는 기아차의 쏘울, 금호타이어 등 세계적인 대구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국 브랜드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지역 브랜드를 둘러싼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미네르바' 무죄판결 뭘 의미하나

법원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으로 보인다. 물론 인터넷을 무정부적인 공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박 씨가 올린 두 개의 글을 문제 삼아 적용한 법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하지만, '틀린 답변'이 아니라 '다른 답변'에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박 씨가 올린 두 개의 글을 문제 삼아 적용한 법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자전거 공유·대여제도인 '벨리브'(Velib)가 파리지역의 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전거가 다시 조영되고 있다. 이 대령은 20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강조했다.

NGO 칼럼

서재의



인간이 태어나서 성공을 위하여 환경 생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모두가 그것을 이루어나지 못하는 건 왜일까?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출근시간 전에 출근해 하루 계획을 하는 것, 제출 서류를 약속 시간에 맞춰 제출하는 것 등 사소한 것에서의 성실한 행동이 성공으로 나아가게 한다.

성공을 만드는 습관

력은 잊어버리고 성공했다는 황홀감에 아름다움에 취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지배할 힘은 없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지배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과정은 힘들지만 이를 즐기는 것,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어진 일에서 성과를 올리는 것, 이를 토대로 보람을 느끼고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 성공이란 바로 이런 철학들의 결과물이며 그러한 삶의 자세를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휴일 인터넷 쇼핑객 울리는 '뺏다방' 사기 주의해야

요즘 인터넷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편하고 값도 좀 싸다 보니 인기가 있다. 짧은 주부들이나 마땅히 시간 내기 곤란한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듯하다.

다는 점을 미끼로 내건다. 이걸 본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어 그래도 직접 전화까지 걸어보는데 이 사기꾼들은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구매 절차와 제품의 특징들을 잘 설명하면서 구매자들을 안심시키는 게 특징이다.

기고

배진홍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고용부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원), 2% 이상, 3% 미만은 2천160원으로(약 380만원), 2% 미만은 3천120원으로(약 550만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이제는 실천이다

맛아 실업자를 돕기 위한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마저 장애인들은 외면을 받고 있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다. 얼어붙은 우리 장애인들의 마음은 국가와 기업체들의 장애인고용으로 눈 녹듯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농촌경제 위협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했으면

예전에는 농촌에도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부터는 구멍가게가 수익이 나지 않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더니 최근에는 농촌에 거의 다 사라졌다.

비싸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또한, 이처럼 농촌지역에 파고든 대형마트들이 시골지역 상권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농촌의 읍내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a 'No Equal Drum' (無等鼓) campaign. It includes text about supporting local products and a list of subscription rates for various regions.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